

■ 대구일보 2016년 1월 4일

“고단한 삶 버티게 한 따신 밥 한그릇”



‘따신 밥 한그릇’은 도시락, 식당운영, 반찬사업 등을 통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쪽방 주민들의 자활을 돕는데 사용한다. 쪽방 주민 6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따신 밥 한그릇’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김정목 기자 [tigerjm@idaegu.com](mailto:tigerjm@idaegu.com)



지역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단법인커뮤니티와 경제’다.

이곳은 2011년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고 설립돼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안전행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대구시·경북도 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 및 협동조합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커뮤니티와 경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교육, 자원조사, 모델발굴, 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산으로 지역 공동체 재구성을 중요 가치로 삼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질적·양적 성장을 돕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2014년과 지난해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지역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 커뮤니티비즈니스인 마을기업은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의 형태로 해결하도록 한다.

앞으로 ‘커뮤니티와 경제’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모델발굴, 사회적경제 지원 생태계 구축 및 자원연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지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및 교육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와 연계 등의 활동에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커뮤니티와 경제’ 관계자는 “지역특화 모델 발굴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금을 또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따뜻한 밥 한그릇에 담긴 자활 노력

“따뜻한 밥 한그릇 든든하게 먹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대구시 서구 평리동 쪽방 주민의 자활을 돕는 희망드림센터 1층에 지난해 문을 연 마을기업 식당 ‘따신 밥 한 그릇’. 이곳은 지난해 4월 대구시의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문을 연 곳이다.

따신 밥 한 그릇은 자원봉사자 및 쪽방 거주민 근로자 등 직원들이 도시락, 식당, 반찬사업 등을 진행하며 나오는 수익금으로 쪽방 거주민들을 돕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마을기업이 되면서 쪽방 거주민 6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조리과 배달, 청소등에 투입해 직접적인 자활을 돕고 있기도 하다.

따신 밥 한그릇을 운영하는 김명신 팀장은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쪽방 주민에게 일회성 도움이 아닌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방안을 고민하던 중 식당 운영으로 이들의 자활을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따신 밥 한그릇’이 시작됐다”며 “복지단체 역시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수익금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 팀장의 설명처럼 ‘따신 밥 한그릇’이 얻는 수익금으로 한 달에 두 번 동대구역 무료급식 실시, 동네 어르신 무료식사 제공, 기업과 연계한 도시락 및 반찬지원 등 사업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쪽방 거주민과 노숙인들에게도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있기도 하다.

이곳이 지금의 모습처럼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일이 있었다.

쪽방 거주민들은 사실상 노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처음에는 하루 한시간 설거지를 하고 시급을 받아가기도 하며 조금씩 일거리를 늘려나갔다.

현재는 배달이나 청소 등을 통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쪽방 거주민이 지금까지 있었던 빚을 다 갚고 다시 자활의 길을 모색해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신 밥 한그릇은 이제 새로운 영업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은 규모가 작아 대구지역 전체 쪽방 거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지역기업과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반찬이나 도시락 후원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김 팀장은 “월드비전의 복지사업을 모델로 따신 밥 한그릇 마을기업 역시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또 그 수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선 순환식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며 “마을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직접 식당에 와서 든든한 밥 한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kwj@idaegu.com